

KIA,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 잡아라

KIA-삼성·두산-LG전 관심 증폭...5위 쟁탈전 치열
6위 KIA 3연속 '역전승' 무서운 반등...삼성전 총력

프로야구 전망대



이제 100경기 채 남기지 않은 올해 프로 야구 중반 레이스의 최대 관심사는 5위 싸움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가 벌이는 5위 쟁탈전에서 포스트시즌 출전 마지막 팀이 결정된다. 선두 두산 베어스는 한국시리즈 직행을 위한 매직넘버를 8로 줄였다.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 넥센 히어로즈 세 팀은 차례로 2~4위의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5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7일 현재 순위로는 6위 KIA를 2경기 차로 앞선 LG가 5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KIA와 LG보다 3경기 뒤진 7위 삼성이 맹렬하게 뒤를 쫓는다.

최근의 기세를 보면 '디펜딩 챔피언' KIA의 반등이 무섭다. KIA는 롯데 자이언츠, SK를 상대로 3경기 연속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5위 싸움에 불을 지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18~19일 열리는 경기는 KIA와 삼성에 모두 중요한 일전이다. 5위 경쟁팀에 이기면 2승, 지면 2패의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반타작만으로는 양 팀의 성에 차지 않는다. 무조건 2연승을 해야 상대를 떨쳐낼 수 있다.

시즌 상대 전적에서 삼성은 KIA에 8승 5패로 앞섰다. 특히 대구 홈경기에서 7월 말 3전 전승을 거두는 등 4승 1패로 우세

했다. 극적인 3연속 역전승으로 기사화됐던 KIA는 여세를 몰아 대구에서도 승리를 이어갈 기세다. 김기태 KIA 감독은 모든 선수를 가동하는 총력전으로 삼성에 맞선다.

롯데, 두산, kt wiz를 불러 흠에서 6연전을 치르는 LG도 한숨 돌릴 여유가 없다.

8연패 수렁에 빠져 5위 싸움에서 사실상 멀어진 롯데에 1패라도 당하면 큰 타격을 받는다.

올해 상대 전적 11전 전패의 '천적' 두산과의 2연전은 더욱 부담스럽다. 두산을 상대로 자신감을 회복하나, 승리의 제물로 끝까지 남느냐 LG는 갈림길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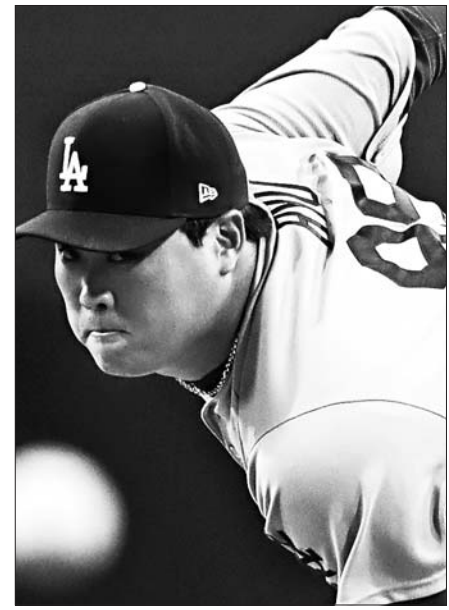
KIA보다 7경기를 더 치른 LG와 삼성은 승리를 더 많이 쌓아야 5위 경쟁에서 우위에 선다. 두 팀보다 경기를 덜 치른 KIA엔 승리를 보낼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김재환(두산·40개)과 박병호(넥센·39개)가 벌이는 홈런왕 신구 거포 대결, 두산의 한 시즌 최다승 신기록 도전은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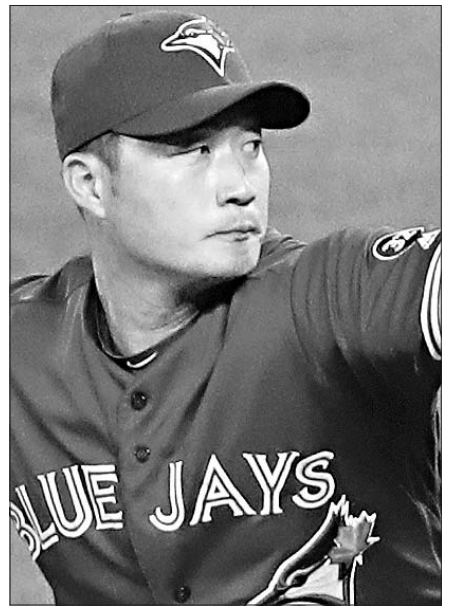
프로야구 주간 일정

구장	18~19일	20~21일	22~23일
잠실	롯데-LG	두산-LG	kt-LG
고척	두산-넥센	삼성-넥센	SK-넥센
문학		한화-SK	
수원	SK-kt		
대전			KIA-한화
대구	KIA-삼성		롯데-삼성
광주		NC-KIA	
사직		kt-롯데	
마산	한화-NC		두산-NC

주에도 이어진다. 두산은 19경기를 남기고 82승 43패를 거뒀다. 현재 승률(0.656)을 끝까지 이어간다면 12승을 더 보태 94승으로 2016년(93승 1무 50패) 세운 KBO리그 단일시즌 최다승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



류현진



오승환

류현진 vs 오승환, 지구 우승 놓고 격돌

류현진 콜로라도전 3연전 선발 등판...마지막 맞대결

미국프로야구에서 뛰는 한국인 투수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오승환(36·콜로라도 로키스)이 소속팀의 지구 우승을 향한 마지막 3연전 맞대결에 출격한다.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우승을 다투는 다저스와 콜로라도는 18~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정규리그에서 마지막 맞대결을 치른다.

류현진은 3연전 시리즈의 첫판에 선발 등판한다. 콜로라도 불펜의 핵심인 오승환은 시리즈 내내 등판을 대기한다.

17일 현재 콜로라도가 82승 67패를 거둬 지구 1위에 올랐고, 다저스는 82승 68패로 0.5경기 뒤진 2위에 자리했다.

양 팀의 피 말리는 지구 1위 경쟁은 주초 3연전에서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한 팀이 3연승을 내달리면 선두 싸움에서 탄력을 받는다.

지구 우승을 차지하면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로 직행하나 와일드카드 경쟁으로 내몰리면 지구 우승은 물론 가을 야구 출전도 장담할 수 없어 계도 구력도 모두 잃는 상황에 직면한다.

다저스는 콜로라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같은 지구에 속한 4개 팀과의 3연전으로 정규리그를 마감한다. 콜로라도는 다저스, 애리조나와 세 번

씩 격돌하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워싱턴 내셔널스 등 동부지구 두 팀과의 7연전으로 정규리그를 마친다.

올해 양 팀의 상대 전적에선 다저스가 9승 7패로 앞섰다. 홈에서 3승 3패, 방문 경기에서 6승 4패를 거뒀다.

올해에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처음으로 단전이다. 그것도 기선제압에 가장 중요한 3연전의 첫 경기에서다.

시즌 4승 3패, 평균자책점 2.42를 올린 류현진은 콜로라도를 상대로 5승에 세 번째로 도전한다.

잇달아 패배를 안은 지난 두 번의 등판에서 안타를 많이 내준 만큼 안타 허용을 줄이는 게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다.

류현진이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올해 3승 2패를 올리고 평균자책점 1.51로 좋았기에 이번에도 기세를 이어갈지 흥미롭다.

올 시즌 6승 3패 3세이브, 19홀드를 올린 오승환은 앞서거나 박빙의 상황에선 언제든 출격을 대비한다.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일주일 간 실전에서 던지지 않은 오승환은 불펜 피칭으로 다저스전 등판 준비를 마쳤다.

오승환은 올 시즌 다저스스타디움 마운드에 서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두 번 등판해 2%이닝 동안 안타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삼진 6개를 솜아내며 무결점 투구를 선사했다.

/연합뉴스

KIA 임창용, 오늘 한·미·일 1천G 출장

최연소 100세이브, 최고령 세이브 기록 등 보유

임창용(42·KIA 타이거즈·사직)이 한·미·일 프로야구 통산 1천 경기 출장 대기 기록 달성을 눈앞에 뒀다.

임창용은 1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임창용의 KBO리그 통산 756번째 등판이다. 그는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238경기에 나섰고, 미국 메이저

리그 시카고 컵스에서 6차례 등판했다. 한·미·일 통산 1천 번째 등판은 대구 삼성전에서 이뤄진다.

임창용에 앞서 이상훈, 구대성, 박찬호가 한·미·일 프로야구 1군 무대에서 뛰었다. 하지만 1천 경기 이상 등판한 투수는 없다.

1995년 KIA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임창용은 1998년 12월 삼성으로 트레이드됐다.



일본과 미국을 거쳐 2014년 삼성으로 돌아온 임창용은 2016년 KIA로 복귀했다.

KBO리그에서 18시즌을 뒀 임창용은 1천698이닝을 던져, 128승 85패 258세이브 19홀드 1천448탈삼진 평균자책점 3.44를 올렸다.

1998년 34세이브로 최연소 구원왕에 오른 그는 3차례(1998년, 2004년, 2015년)나 구원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최연소 100세이브(23세 10개월 10일), KBO 최초 3년 연속(1998~

2000) 30세이브 기록도 달성했다. 1999년에는 평균자책점 2.14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 기록(42세 3일)도 임창용이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한 임창용은 야쿠르트에서 5시즌 동안 238경기 등판해 233이닝을 던졌고, 11승 13패 128세이브 173탈삼진 평균자책점 2.09를 기록했다.

2013년 미국으로 떠난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6경기에서 5이닝(평균자책점 5.40)을 던졌다.

/연합뉴스

배상문, PGA 웹닷컴투어 대회 우승

다음 시즌 PGA 투어 시드 유지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 기뻐"

배상문(32)이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인 웹닷컴투어 보이시오프(총상금 1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배상문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힐크레스트 CC(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배상문은 공동 2위 선수들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8만 달러(약 2억원)를 받았다.

이로써 배상문은 2018~2019시즌 PGA 투어에서 안정적으로 활약하게 됐다.

지난해 8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배상문은 PGA 투어로부터 전역 후 25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시드를 보장받았다.

그는 2017~2018시즌에 PGA 투어 17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페덱스컵 순위 202위, 상금 순위 196위(18만4천57달러)에 머물러 2018~2019시즌 출전 자격을 확보하지 못했다.

추가로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하면 2018~2019시즌에 8개 대회밖에 나가지 못하게 될 상황이던 배상문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다음 시즌 PGA 투어 출전 자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배상문은 17번 홀까지 18언더파로 다른 세 명의 선수와 공동 선두를 달렸으나 마지막 18번 홀에서 약 2m 버디 퍼트로 짜릿한 우승 기쁨을 누렸다.

배상문이 이날 우승한 보이시오프는 웹닷컴투어 파이널 시리즈 4개 대회 중 세 번째 대회다.

웹닷컴투어는 정규 대회 상금 순위 상위 25명에게 다음 시즌 PGA 투어 출전 자격을 주고, 파이널 4개 대회 상금 순위를 따로 산정해 상위 25명에게 역시 다음 시즌 PGA 투어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배상문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남은 파이널 시리즈 최종전 결과에 관계없이 파이널 상금 순위 25위 내에 드는 것이 확정돼 2018~2019시즌 PGA 투어에서 활약을 이어가게 됐다.

배상문은 파이널 3개 대회까지 상금 21만 8천156 달러를 기록, 상금 1위에 올랐다.

20일부턴 나흘간 열리는 파이널 최종전 웹닷컴투어 챔피언십까지 상금 1위를 지키면 다음 시즌 PGA 투어 출전 자격 우선순위를 더 상위로 끌어올리고,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출전 자격까지 얻을 수 있다.

올해 웹닷컴투어 정규 대회 상금 순위 1위는 임성재(19)가 차지했고, 파이널 상금 1위도 한국 선수인 배상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배상문은 경기를 마친 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과 인터뷰에서 "올해 힘든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공동 선두로 우승 경쟁이 이어진) 마지막 몇 개 홀은 정말 힘들었다"며 "하지만 참을성을 갖고 경기에만 전념하자고 나 자신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시즌에 다시 PGA 투어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주 정말 믿기 어려운 우승으로 다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2018~2019시즌을 기억했다.

/연합뉴스

배상문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힐크레스트 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인, 웹닷컴투어 보이시오프 마지막 홀에서 버디 퍼트에 성공하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뻐하고 있다. 이날 배상문은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6타를 기록,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로 공동 2위 선수들을 1타 차로 따돌렸다. /AFP/Getty/연합뉴스



전남도청 정구팀

전남도청 정구팀,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2018 순창 추계 한국실업정구연맹전서 농협에 2-1 역전승

전남도청 정구팀이 2015년 이후 3년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 정구팀은 16일 전북 순창공설운동장 정구장에서 폐막된 2018 순창 추계한국실업정구연맹전 결승전에서 농협에 게임스코어 2-1로 승리하며 정상에 등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우승은 2015년 춘계 한국실업연맹전 이후 3년만에 이룩한 전국대회 우승이다.

전남도청은 이번 대회 6강 토너먼트에서 문경시청(경북)에 2-0으로 승리하고, 4강전서 경남체육회(경남)를 역시 2-0으로 제압한 뒤 결승에 올랐다.

상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대표 3명이 포진한 '호화군단' 이자 '전국 최강'인 농협이었다.

전남도청은 첫 번째 복사에서 정아름·유희라(前상비군대표)조가 상대 문혜경(아시안게임 대표·은메달 2개 획득)·나

솜(현상비군대표)조에 0:4로 패해, 출발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도청은 두 번째 단식의 이슬지가 상대 김홍주(현상비군대표)를 상대로 3:1로 승리하며 게임스코어 1-1 균형을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게임에 나선 정상희·박지연조가 상대 이민선(현상비군대표)·백설(아시안게임 대표·은메달 1개 획득)조에 4:1의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게임스코어 2-1로 올해 첫 번째이자 3년만에 단체전 우승을 만들어냈다.

서정철 전남도청 정구팀 감독은 "단장(김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과 스포츠산업과장(서이남)이 새로 부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면서 선수단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다"며 "팀이 상승세인만큼 남은 기간 컨디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제99회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상기 기자